



中蘇對立이 韓半島의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보관용
(관리부) ✓

1974. 7. .

國土統一院

1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年 7月 日

研究機關：東國大學校安保問題研究所

責任者： 閔 丙 天

目 次

| | |
|----------------------------------|----|
| 序 言 | 3 |
| 第 1 章 紛争의 内容 | 5 |
| 1. 紛争의 主要側面 | 7 |
| 2. 紛争의 争点 | 16 |
| 第 2 章 紛争과 兩國關係 | 25 |
| 1. 兩國關係의 展開 | 27 |
| 2. 兩國關係의 展望 | 34 |
| 第 3 章 紛争과 北韓의 態度變化 | 47 |
| 1. 北韓의 選擇肢 | 49 |
| 2. 兩國에 對한 態度의 展開 | 55 |
| 第 4 章 紛争의 國際政治 및 北韓에 對한 影響 | 63 |
| 1. 國際政治에 미치는 影響 | 65 |
| 2. 北韓에 미치는 影響 | 72 |
| 第 5 章 統一 및 韓國行動에 미치는 影響 | 83 |
| 1. 統一에 미치는 影響 | 85 |
| 2. 韓國의 對中·蘇行動에 미치는 影響 | 89 |

序 言

1960年代以後에 있어서 國際關係上의 重要한 두통거리의 하나를 든다면 아마도 中・蘇紛爭도 제외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비록 兩大國間의 紛爭이기는 하나 그것이 미치는 影響은 蘇聯과 中共이 國際政治社會에서 차지하는 比重때문에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處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中共과 蘇聯은 北韓共產集團과 同盟體制를 맺고 있으면서 支援해 주는 背景勢力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第2次大戰後의 歷史的 過程에서 兩國이 韓半島에서 차지하는 役割과 位置때문에서도 그러하다.

흔히들 韓半島는 美・蘇・日・中共의 四極構造속에 들어 있다고 한다. 四強에 둘러 싸인 中央的 位置라는 것이다. 이 四極中の 二極이 紛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韓半島의 運命에도 影響을 크게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사리 予想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兩大共產國의 紛爭이 미치는 影響을 정확히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統一政策과 安保政策은 勿論 對共產圈外交 등의 北方政策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확실하다.

이런 뜻에서 本稿는 中・蘇紛爭이 北韓의 政策과 能力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가, 國際政治에는 어떤 影響을 미치는가, 統一問題에는 어떤 影響을 주고 韓國의 對中共 및 對蘇態度選擇에는 어떤 影響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導出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結果를 얻으려면 紛爭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무엇이 要因이 되고 있는가를 檢討하여 將次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를 予測할 必要가 있다. 그리고 紛爭過程에서 北韓이 어떤 行動을 취해 왔는가를 살필 必要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紛爭에서 생기는 影響因子들을 導出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紛爭이 獨立變數가 되어 그것의 影響因子를 찾는 것에 局限되기 때문에 어떤 政策代案은 제시되지 않을 것이다.

第 1 章 紛 争 の 内 容

1 . 紛 争 の 主 要 側 面

2 . 紛 争 の 争 点

1. 紛争의 主要側面

가. 이데오로기의인 側面

이데오로기의인 側面에서의 紛争은 크게 보아 두가지 点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인 바, 하나는 맑스·레닌主義에 대한 正統性論争이고 다른 하나는 革命戰略에 대한 意見差異이다.

먼저 맑스·레닌主義에 대한 正統性을 둘러싼 對立의 要因과 그 特性을 살펴 보기로 하자.

中共은 蘇聯을 1960年代부터 맑스·레닌主義에 충실히 따르지 않고 있는 나라라고 評價하고 있다. 즉 지난날 獨逸에서 전개되었던 베른슈타인 (E. Bernstein)의 修正主義를 둘러싼 論争을 연상케 하는 論争이 일고 있는 것이다. 中共은 蘇聯을 바로 그 修正主義의 國家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지금의 蘇聯은 社会帝國主義로 타락했고 맑스·레닌主義에서 크게 벗어나는 修正主義國家로 타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蘇聯은 中共指導者들을 教條主義者들이라고 몰아 붙이고 있다. 후르시초프가 自身을 創造的인 맑스主義者로 自處하고 있는 것은 마치 지난날에 레닌이 冒險主義者를 「左翼小兒病」이라고 비난한 것을 想起할 때 깊은 뜻이 있는 것 같다. 즉 中共

의 敎條主義者들은 左翼小兒病에 걸린 冒險主義者들이라고 보는 것이 蘇聯指導層의 공통된 見解인 것이다.

中共과 蘇聯이 서로 맑스·레닌主義의 嫡子임을 주장하는 現象은 마치 1054年부터 일기 始作한 敎義聖典의 解釋을 둘러싼 로마 카톨릭敎會와 東方正敎의 싸움에 비길만 하다. 當時에 그 兩大勢力은 論爭을 거듭한 끝에 결국 大分離하고 말았거니와 지금의 蘇聯과 中共도 옛날의 그것과 같은 原因과 樣相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中·蘇間의 이데오로기의인 論爭은 革命戰略을 싸고 더욱 예리하게 對立되고 있다. 革命觀이 그 國家社會가 처한 環境의 產物이라는 점에서 兩國의 革命戰略에 있어서의 差異는 歷史성과 관련이 되기도 한다.

蘇聯의 革命觀은 都市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中共의 그것은 農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蘇聯의 革命觀은 그의 歷史的 經驗과 관련되는 것이다. 蘇聯의 볼셰비키가 政權을 잡은 것은 第1次大戰末葉의 混亂하고 고통스러운 社會環境을 배경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手段은 都市를 中心으로 하여 또 舊體制의 軍隊를 利用하였던 것이다. 都市에서 農村으로의 擴散方式에 따랐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中共의 경우는 數十年에 걸친 고통스러운 鬪爭끝에

赤化革命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 방식은 주로 農村을 拠点으로 해서 都市를 포위하는 遊擊戰과 民族解放(對日戰의 경우)의 戰爭이라는 過程 및 方法을 택하였던 것이다.

나. 國境上의 問題

中·蘇紛爭의 直接的인 契機와 그것을 繼續해서 격화시키게 하는 媒介體는 國境問題이다. 즉 國境問題야말로 中·蘇紛爭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要因으로 作用하여 왔다고 하겠다.

中共과 蘇聯間에 問題가 되고 있거나 될 可能性이 큰 地點 및 條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1858年 璦琿條約에 의해서 蘇聯領土로 된 黑龍江 및 沿海州地域

② 北京條約(1860年)과 다르바가라이條約(1864年)과 어리조약(1881年) 및 페테르스블크條約(1882年) 등에 의해서 蘇聯에 併合된 新疆西北地域

③ 아프가니스탄勢力圈協定(1895年)에 의해서 편입된 파미르高原地帶

④ 蒙古地域

위에 列挙했듯이 지금의 中共과 蘇聯을 區劃짓고 있는 거의 大部分의 地域이 紛爭對象에 들어가고 있다. 中共側으로 볼 때는

지난날의 條約이 不平等한 狀態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中共의 要求가 正當視될 수 있다. 오늘의 中共과 蘇聯間을 갈라놓고 있는 國境에 대한 모든 條約은 不平等하게 맺어졌고 특히 北京條約은 레닌도 시인하¹다싶이 不平等한 條約의 代表이다. 그러므로 中·蘇 紛爭은 兩國間에 개재하는 중대한 國家利益을 위한 紛爭이기도 하다.

國境에서는 적고 큰 衝突이 여러번 있었다. 珍寶島衝突은 가장 近年에 있었던 큰 事件이다. 1968年頃에 國境에서는 여러 事件이 있었거니와 이때를 契機로 해서 兩國은 國境問題解決을 위한 交渉이 進行되어 왔는 바, 그에 관해서 간단히 살피기로 한다.

國境問題에 대해서 中共이 蘇聯에게 제시한 條件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① 蘇聯은 帝政러시아時代に 맺은 國境條約이 不平等條約임을 認定해야 한다.

② 지금의 中·蘇國境이 帝國主義的이며 침략적인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③ 이 不正한 諸條約을 기초로 하여 國境線의 불명확한 部分까지도 包含해서 全線을 재확정하고 쌍방이 모두 이 確定國境線의 각각의 外側部分에 대해 現地住民의 利益을 考慮하면서 相對方에게

무조건 반환하거나 재조정 한다.

④ 새로운 中·蘇平等의 條約을 조인하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國境線을 획정 한다.

⑤ 國境의 현상유지를 지키고 國境의 諸地點에서 쌍방의 見解가 상치되고 있는 地域으로부터 中·蘇武裝兵力을 이탈시켜서 접촉의 機會를 배제 한다.

以上の 諸條件의 文脈을 그대로 본다면 現存의 國境을 中共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이 보이며 帝露와 淸間에 맺어진 國境과 관련된 條約을 부인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中共은 비록 不平等條約이기는 하나 그것에 입각해서 中國에서 뺏은 諸領土의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1969年 10月8日에 發表된 中共外務省文書). 그것은 結局 現存條約과 境界를 바탕으로 하여 再調整하려는 것이 中共의 立場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蘇聯의 立場에서는 지금 効力을 내고 있는 國境과 관련된 諸條約을 「不平等한」 것이라고 시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現存의 國境線을 「不當한」 것이라는 主張에도 동의할 수는 없다. 蘇聯의 指導者들은 지금의 領土를 한치라도 讓步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兩國의 主張에서 볼 때 國境問題는 紛爭의 큰 불씨이며 또한
두고 두고 발생의 근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나 境界線全般에 걸쳐
紛爭의 불씨를 完全히 끌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 一般的國利의 側面

이데오로기라든가 國境이라든가 하는 特殊問題뿐만이 아니라 中共
과 蘇聯의 對立과 葛藤을 일으키는 데는 政治, 軍事, 經濟는 一般
的인 國利의 相衝도 작용요인이 되고 있다.

世界속의 蘇聯과 中共의 政治的 位置는 크게 다르다. 아무리
中共이 核彈을 保有하면서 A.A 國家群에 대한 影響力을 적지 않
게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有數의 國家들은 中共에 대해서는
중대한 威脅意識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다. 世界의 多元化가 進
行되고 있다고는 하나 美國과 蘇聯을 超大國의 地位에서 내려 놓
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中共의 立場에서 보면 이 兩大帝國主義國家 - 資本主義
的 帝國主義國家인 美國과 社會主義的 帝國主義國家인 蘇聯 - 의
超大國的인 地位에 도전하여 국제적 地位을 向上하지 않을 수 없
다. A.A 地域에 대한 中共의 積極적인 外交進出努力은 그 때문인

· 內
· 2
· 미

것이다. 中共의 進出努力은 자연히 蘇聯의 現狀維持政策과 상충하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A.A 地域에서의 政治競爭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蘇聯이 美國과 더불어 超大國의 지위를 兩分하는 狀態를 지속하고 中共威脅의 增大를 억제하기 위해서 中共周邊國을 장악함으로써 紛爭은 더욱 더 가열될 수 밖에 없게 된다.

蘇聯은 蒙古와 同盟關係를 맺고 있으면서 매우 密着된 關係를 維持하고 있어서 西北으로부터의 反中共網이 확고히 되어 있다.

또 蘇聯은 印度와 友好協力條約을 맺어 兩쪽으로부터 中共을 압박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에 대한 開發權을 부여함으로써 日本을 中共보다는 蘇聯쪽에 기울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蘇聯의 大戰略은 모두가 中共包圍網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워지고 집행되고 있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에 따라 그런 狀況들은 모두가 中共과 蘇聯의 對立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것들이라고도 하겠다. 社會主義를 完成하여 「滿足해 있는 나라」로서 또 「가진 나라」로서의 蘇聯이 「가지려는 나라」인 中共을 포위하고 또 中共이 가진 나라의 獨占狀態를 깨려 하기 때문에 兩者의 對立과 紛爭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中·蘇紛爭의 가장 큰 要因의 하나는 核武器를 늘려 싸고 일어

났다. 다른 要因들과 결하여 兩國間에 紛爭이 일자 蘇聯은 50年
代後半부터 中共의 核工業에 必要한 技術과 資材提供을 끊고 말았
는데 이것이 兩國의 紛爭을 격화시키고 확대시킨 큰 要因이 되었
던 것이다.

1963年8月 모스크바에서 美國과 蘇聯 및 英國이 「部分的 核
実験禁止條約」에 加入하자 中共은 이것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것은 既存의 核保有國이 核을 독점하려는 처사이기 때
문에 中共은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中共의 화살은 美·英
兩國에게 보다는 蘇聯에게 쏘렸고 그것이 두 나라간에 紛爭을 가
져온 결정적인 分水嶺을 이룬 것만은 확실하다.

中共이 1964年10月16日 核実験에 성공한 후에 이룬 核分野에
서의 발전은 오로지 中共의 독자적인 힘과 技術 및 努力에 따른
것이였다. 그러기 때문에 中共의 核武器運搬手段의 開發은 크게
뒤지게 되었다. 1970年4月24日에 人工衛星을 地球軌道상에 進入시
키는데 성공했지만 만약에 蘇聯의 技術支援이 있었다면 훨씬 앞당
겨 그것을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ICBM (大
陸間 彈道誘導彈) 開發에 따르는 長距離 核運搬을 쉽게 또 빨리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中共으로서는 蘇聯의 核技術에
대한 支援遮斷을 심각하게 받아 들였던 것이고 이로 因해서 兩

國關係에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생기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經濟的인 측면에서도 兩國間의 紛爭要因은 적지 않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高度産業國家인 蘇聯과 後進農業國家인 中共은 필연적으로 經濟發展段階의 차이에서 思考와 行動의 차이를 빚게 마련이다. 高度産業國家인 蘇聯은 이데오로거나 政治為主보다도 현실주의적이고 經濟的인 思考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戰爭을 회피하는 方途에 크게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農業爲主의 經濟構造를 지닌 中共은 政治爲主路線을 내 세우게 된다.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의 意見對立은 불가피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형편에서 後進農業國으로서의 中共이 필요로 하는 産業施設과 技術에 대해서 蘇聯이 그 支援을 外面하자 紛爭은 露骨化되고 말았던 것이다.

2. 紛争의 争点

이제 蘇聯共産党 20次大会에서 제기한 후르시초프의 主張을 中心으로 하여 中·蘇間의 見解差를 살펴 보기로 한다.

가. 平和共存問題

후르시초프는 平和共存이 전술적인 便宜가 아니고 共産主義의 승리를 위한 對外政策의 基本原則이며 비폭력적인 方法에 의한 社会主義에의 轉換의 可能性이 增大하였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것은 戰爭不可避論 및 暴力鬪争에 관한 맑스·레닌主義的인 教理를 수정하는 重要한 발언이다.

이 후르시초프의 主張은 中共으로부터 正面으로 挑戰을 받게 되었다. 攻擊의 焦点은 蘇聯이 戰爭을 두려워 하는 겁쟁이라는 情緒論的인 것에 있었다. 勿論 「美國을 비롯한 帝國主義」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戰爭과 鬪争이 불가피하다는 根本的인 점에 대한 論争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攻擊의 焦点은 蘇聯의 行動이나 思考 및 狀況에 두어졌던 것이다.

蘇聯이 戰爭可避論을 내 세우는 것은 核의 恐怖때문이었다. 核戰爭이 발발할 경우에는 蘇聯이 世界赤化의 窮極的인 目標를 達成하기는 커녕 오히려 自滅할 危險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核力

을 갖지 않은 中共으로서,는 核力을 가진 國家를 「종이 호랑이」로 規定하면서 戰爭의 不可避性을 역설한 것이다. 결국 平和共存論이나 戰爭可避論은 蘇聯이 처한 狀況의 產物인 것이며 그것에 中共이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中共의 狀況때문인 것이다.

나. 스탈린 格下 問題

스탈린 格下 問題는 中共의 对内政治에도 적지 않은 影響을 줄 염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中共指導者들은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格下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아마도 中·蘇紛爭을 격화시킨 가장 결정적인 事項은 이 스탈린 格下 問題라고 보여진다. 1960年9月10日 字 中共의 對蘇書翰에서도 「中·蘇間의 진정한 對立은 후르시초프가 各國 共産黨과의 事前協議없이 20次大會에서 스탈린의 積極的 역할을 부인한데 있다」고 지적할만큼 中共으로서,는 스탈린 格下 問題가 중요시되는 것이다. 즉 中共으로서,는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格下가 스탈린에게 국한되고 더 이상 擴大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中共이 스탈린 格下에 반대하는 것은 스탈린을 찬양해서라기 보다는 스탈린과 立場을 같이 하는 毛沢東의 處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中共으로서,는 스탈린의 過誤는 「社會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어서 不可避한

現象』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스탈린의 過誤가 社會主義社會와 關係가 없는 것으로서 스탈린 個人에 관련된 過誤라고 주장하는 후르시초프의 意見과는 根本적으로 다르다. 후르시초프로서는 스탈린 死亡後의 蘇聯에서 自身の 權力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스탈린의 過誤를 스탈린 個人에게 돌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中共으로서는 스탈린적인 指導를 하고 있는 毛沢東을 正當化하기 위해서 스탈린의 行蹟을 社會主義化過程에서 不可避한 것으로 主張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 一元性和 多樣性

社會主義陣營의 內部關係를 규율하는 原理로서 一元的 支配를 願하는 蘇聯의 立場과 多樣性속에서의 團結(支配가 아님)을 생각하는 中共의 立場이 맞서게 되었다.

스탈린의 死亡은 陣營內部關係에 있어서까지도 어떤 變化의 徵兆를 보였다. 蘇聯조차도 종래의 一元主義적인 支配에 대신하여 社會主義의 多樣性을 인정하면서 内部的인 단결을 維持할 수 있는 內部關係의 새로운 設定이 要望되었던 것이다.

그런 狀況에서 후르시초프는 中共의 創造적인 맑스主義的 活動과 유고의 獨特 經濟管理 및 組織을 社會主義建設에 있어서의 豐富한 獨自性의 實例로 들고 있다. 그리하여 20次大會는 社會主義의

多様性を 처음으로 公式化하는 契機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르시초프가 多様성을 공명한 뜻은 유고와의 關係를 改善하기 위한 一時的 方便이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후르시초프는 다시금 共產陣營에 대한 蘇聯의 支配權을 確立하려고 꾀했던 것이다. 즉 유고가 平等과 獨立의 原則을 全共產國家에 一般化하려 하자 蘇聯은 一元支配에 의해서만 참다운 獨立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즉 후르시초프의 主張은 多元論에서 一元論으로 되돌아 갔고 이것이 中共과의 紛爭을 일으키는 하나의 要因이었던 것이다.

中共은 元來 一元的인 領導權論과 複數主義의 中間的인 立場을 취하고 있었다.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의 蘇聯의 中心的인 位置를 인정하면서도 유고에 대한 스탈린의 統制努力에도 비판적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蘇聯과 유고와의 紛爭에 있어서도 中共은 中間的인 立場을 취하여 「兩國의 矛盾이 非敵對的 矛盾이며 基本的 矛盾이 아니라 意見의 差異에 지나지 않는다」는 點을 강조하면서 基本的인 蘇聯의 經驗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에는 國內問題의 差異는 許容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던 것이다. 즉 基本的인 蘇聯의 經驗인 ② 共產黨이 맑스·레닌主義를 실천한다는 것, ② 革命鬪爭으로 프로레타리아트가 權力을 장악한다는 것, ③ 革命後 프로레타리아

独裁에 의해서 産業의 国有化와 農業의 集團化 実施, ④社会主義 經濟의 計劃化된 發展, ⑤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의 指向 등을 지키 면서 国内問題의 다양한 처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中共의 主張인 것이다.

라. 共產主義로의 移行方法問題

蘇聯과 中共은 확실히 歷史發展의 段階를 달리하고 있다. 그에 따라 兩國은 자기 다른 革命過程을 거쳤고 社会主義化와 共產化過程을 겪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中共으로부터 蘇聯式의 共產化過程과 方法이 新興國에 적합하지 않다는 攻擊은 政治, 經濟, 이데오 로기 등 여러 각도로 행해지고 있다.

中共은 中共方式이 모든 後進國에 적절한 方式이라고 주장함으로써 蘇聯의 政治的 領導權에 화살을 가하고 있다. 外交競爭을 비 롯한 權力鬭爭的인 측면을 나타내기에 이른 것은 이러한 領導權을 둘러 싼 論爭때문이다. 中共方式의 共產主義로의 移行方式의 또 하나의 특징은 人民公社와 大躍進으로 이루어지는 「總路線」인 바, 이것은 급속한 經濟成長의 概念을 도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經濟的인 局面인 것이다.

中共은 共產主義社會에 移行하는 蘇聯의 路線이 너무도 불필요한 長時日을 요하기 때문에 이데오로기의인 熱狂을 생각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共產化段階觀과 관련되는 이데오로기의 對立이 되는 것이다.

마. 民族解放運動

民族解放運動에 대한 態度는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라는 共產主義의 基本과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蘇聯은 20次大會를 契機로 해서 各國의 共產黨보다도 民族主義的 獨立運動家를 지지하는 態度를 취하여 表面的으로는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와 상반되는 態度를 보였다. 蘇聯의 이러한 態度는 共產革命의 條件이 新生國에 성숙되지 않는 가운데 反帝鬪爭過程에서 共產勢力과 民族勢力이 同盟을 맺지 않으면서도 中立主義勢力은 점차로 늘어나는 狀況에서 나타난 것이다. 즉 歷史的인 狀況條件과 관련되어 나온 行動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蘇聯의 態度는 스탈린時代의 兩陣營이라는 概念이 放棄되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蘇聯은 反帝的인 「民族主義勢力」의 獨立을 支援하고 또 그런 勢力이 강악하고 있는 政權을 經濟的으로 또는 軍事적으로 원조함

으로써 그 나라의 共産黨에 대하여 간접적인 抹殺行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勿論 그 民族勢力은 ①非同盟의 反西方의 原則, ②西方의 經濟的 影響力の 極小化, ③共産主義者에 대한 寬容, ④自主的 國家經濟의 發展 등의 네개 조건을 지키는 勢力이었기 때문에 共産勢力이 完全히 그러한 나라에서 말살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勢力伸張을 위해서 蘇聯이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게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中共도 國家形態를 브르조아 獨裁의 共和國과 프로레타리아 獨裁의 共和國 및 革命的 數個階級の 聯合獨裁 共和國으로 분류하고 新興國의 과도적인 國家形態로서 앞의 第3의 形態를 인정하고 있다. 즉 新興後進國에 있어서는 브르조아 革命에서 직접 사회주의 革命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中共은 그러한 國家形態의 存在를 인정하면서도 「授助와 이데오로기」는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내 세워 蘇聯의 立場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다.

바. 戰爭可避의 問題

戰爭可避의 問題는 1957年 11월에 열렸던 모스크바會議(64個國이 참석한 共産黨代表會議)에서 제기되면서부터 論爭이 시작되었다. 이 會議에서 戰爭이 不可避한 것이 아니라는 立場이 세워지기는

하였으나 民族解放運動은 平和와 戰爭저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과 共產主義로의 平和的 移行은 資本主義國家에만 局限되는 것이라는 中共의 主張이 가미되었다. 즉 1957年の 會議에서는 戰爭의 可避性問題에 대한 中·蘇間의 意見對立은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1959年 1月~2月에 있었던 蘇聯共產黨 第21次 大會에서 후르시초프는 戰爭可避論과 그것의 實現可能性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蘇聯이 世界の 指導的 工業國家이고 共產圈의 工業生産이 全世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을 넘기 때문에 이제 戰爭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蘇聯이 추구하고 있는 平和共存이 英國首相(맥미란)의 訪問, 미코얀 第1 副首相의 訪美, 니슨 副統領의 모스크바訪問, 후르시초프首相의 訪美 등도 戰爭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들이라는 것이다.

蘇聯의 이러한 戰爭可避論과 平和共存論은 中共으로부터 격렬한 非難을 받게 되었다. 최근에는 平和共存에 中共自身이 참여하고 있지만 60年代(특히 前半以前)까지는 平和共存을 社会帝國主義(蘇聯)와 資本帝國主義(美國)의 野合이라고 까지 非難한 바 있고 植民主義와 帝國主義와의 싸움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第 2 章 紛 爭 斗 兩 國 關 係

1 . 兩 國 關 係 의 展 開

2 . 兩 國 關 係 의 展 望

1. 兩國關係의 展開

가. 1950 年代

兩國間의 紛爭을 일으키게 한 直接的인 時間的 契機는 1956年 2 月에 있는 蘇聯共産黨 第 20 次 大會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格下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紛爭의 根源은 1920 年代의 兩國關係에서도 이미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中國共産黨이 초보적인 基盤을 쌓고 있던 때에 兩國間에는 이데오로기와 世界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當時의 中國共産主義者는 社會革命과 民族解放의 兩大課題를 놓고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즉 封建적인 遺制에 密着되어 있는 이른바 買辦資本家를 타도하는 社會革命과 國際적인 帝國主義列強을 몰아 내는 民族解放運動이라는 二重的 課題를 안고 있었다. 中國 共産黨이 이 二重課題를 위해서 鬪爭하고 있는 동안 蘇聯은 社會 革命의 課題보다도 帝國主義打倒의 課題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 結果는 蘇聯이 共産黨에 대한 支援을 소홀히 하게 되었던 것이고 理念의 差를 드러내기 조차 하였다.

中國은 1911 年에 있었던 辛亥革命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天下의 統一이 完遂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狀況에서 蘇聯은

帝國主義의 앞잡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孫文이 이끄는 國民黨을 支援하게 되었다. 1921년에 창당한 中國共產黨이 아직은 微弱한 狀態에 있었기 때문이다. 蘇聯의 孫文 支援은 對中國觀과도 關聯된다. 스탈린은 中國에서 조속한 共產主義 革命을 追求하느니 보다는 帝國主義者들의 追放을 達成할 것에 더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었다. 帝國主義를 몰아 내려면 現實적으로 거의 힘을 갖지 못한 共產黨을 支援하기 보다는 能力體인 國民黨을 支援하는 것이 오히려 效果的이라고 본 것이다. 여기에서 蘇聯과 中國共產黨間의 意見差를 찾을 수 있다.

孫文에 이어 國民黨指導者로 등장한 蔣介石은 1927年 共產黨에 대한 대대적인 討伐을 단행함으로써 共產勢力은 地下에 잠복하게 되었고 그 勢力을 잃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陳独秀에 代身하여 毛沢東이 黨을 이끌게 되었다. 黨을 맡은 毛沢東은 蘇聯의 생각 (스탈린의 中國革命觀)과는 달리 社會革命을 重要視하고 있었다. 그는 이 때에 이미 蘇聯의 同盟者이기는 하였으나 衛星은 아니었던 것이다. 自主性을 가지면서 兩大革命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蘇聯과 中國共產黨의 보이지 않는 暗鬪 및 蘇聯의 中國共產黨에 대한 輕視에서 유발된 疎遠關係는 그 후에 繼續되었다. 國共合作

과 萬里長征過程에서도 兩者間에는 보이지 않는 暗鬪가 벌어져 왔던 것이다. 第2次大戰이 끝나고 中共이 政權을 掌握하는 過程에서나 또 掌握한 후에 있어서나 兩者의 關係는 競争意識이나 警戒心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다.

그러던 兩國關係는 1956年 2월에 있는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批判을 계기로 急速히 惡化되어 갔다. 1949年 中共政權이 樹立된 이래로 10余年間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文化的으로 比較的 友好關係에 있던 兩國은 蘇聯共産黨 20次 大會에서의 후르시초프의 스탈린批判을 契機로 타협할 수 없는 길로 치닫게 되었다.

創造的 맑스主義者로 자처했던 후르시초프가 主宰한 20次 大會에서 論議된 主要 事項은 社會主義로의 平和的 移行과 多數中心體制의 問題 및 集團指導制 등이었다.

社會主義로의 平和的 移行問題를 비롯한 모든 主要論題들은 中共의 指向과는 根本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中共은 이때부터 蘇聯을 修正主義라고 공격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때에 主張한 후르시초프의 論調와 맑스·레닌의 主義와를 比較해 보기로 하자.

20次 大會에서 후르시초프가 主張한 바는 다음과 같다.

「몇몇 資本主義國家의 勞動者階級은 議會內에서 安定된 多數를

차지하고 議會를 부르조아 民主主義의 기관으로 부터 참으로 人民의 意思를 대표하는 도구로 바꿀 可能性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高度로 發達한 資本主義 國家에서 전통이 되어 있는 이 機關은 참다운 民主主義 勤勞人民을 위한 民主主義機關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맑스는 「大部分의 大陸諸國에서는 暴力이 革命의 지렛대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았고 레닌도 역시 暴力革命을 신봉하고 있었던 것이다.

表面上으로 또 革命의 方法이라는 면에서만 본다면 후르시초프의 主張은 分明히 맑스·레닌主義를 수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中共은 후르시초프와 그의 支持者들을 暴力革命의 金科玉條를 스스로 포기하고 議會를 통한 社會主義의 實現이라는 修正主義者로 몰아 붙이게 된 것이다. 후르시초프와 그의 支持者들로서는 그것이 맑스·레닌主義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達成을 위해 效果的인 手段을 찾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中共은 戰術이나 手段의 變更이 아니라 根本的인 原理의 問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兩者間의 근원적인 見解差가 생기게 된 것이다.

社會主義로의 平和的 移行의 問題는 戰後에 蘇聯의 영향권안에 들어간 中歐와 東歐諸國에서 있었던 人民民主主義의 이데오로기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하나의 歷史的 產物이며 歐洲라는 場所的인 環境의 所産이기도 하다. 中歐나 東歐는 1917年의 蘇聯의 狀況과는 달랐으며 中共의 狀況과는 더욱 달랐던 것이다. 中歐나 東歐가 비록 蘇聯의 衛星下에서 進行시킨 것이기는 하나 革命을 暴力에 의해서 遂行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1917年의 蘇聯의 경우에는 議會를 통해서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非暴力形態로도 革命은 成功할 수 없었을 것이다. 후르시초프의 着想은 바로 그러한 狀況性에 있었던 것 같다.

후르시초프의 社會主義로의 平和的 移行論이 戰後의 歐洲狀況을 반영하여 成立된 것이라면 그것은 역시 中共의 狀況에서는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中共의 특수한 狀況에서는 暴力革命만이 社會主義를 實現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1959年 1月~2月に 열렸던 蘇聯共産黨大會에서 후르시초프가 戰爭可避의 確実論을 들고 나오므로써 紛争은 격화되었다.

나. 1960年代 以後

50年代 後半에 蘇聯이 새로운 理論등을 繼續 내 놓으면서 中共에 대한 攻勢도 강화하자 中共은 守勢의 立場에 놓였었다.

그러던 것이 60年代에 들어 서면서부터 中共의 攻勢는 活潑해

진다.

1960年 4月 16日字 紅旗에 「레닌主義萬歲」라는 論文에서 帝國主義가 존재하는 限 「戰爭은 不可避하다」고 主張하고 共產主義와 資本主義와의 鬪爭은 歷史의 전시기를 통하여 展開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것은 59年 21次 蘇聯共產黨 大會에서의 후르시초프연설 (戰爭可避論)에 대한 正面挑戰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후르시초프는 1960年 6月 루마니아 勞動黨 第3次 大會에서 다시 攻駁을 하고 있다. 즉 「精神病者가 아닌 이상 世界大戰을 일으키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며 蘇聯과 기타 社會主義國家는 平和共存의 理念에 充實하다」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1962年에 있었던 古巴危機에 대한 蘇聯의 処事에 대해서 中共은 美國과의 野合으로 몰아 치고 63年 8月 部分核禁에 대한 蘇聯의 同意에 中共은 不滿을 표시하였다.

1967年 9月에 中共의 文化大革命에 대해서 브레즈네프는 反革命이라고 規定한데 대해서 中共은 임포의 이름으로 「人民戰爭 勝利萬歲」를 發表하여 中共式의 鬪爭戰略의 正當性을 고집하였다.

同論文에 제시된 世界의 農村 (A.A 및 라틴아메리카)의 하나인 中共은 世界의 都市의 하나인 蘇聯과는 矛盾的 存在이며 不相容의 關係인 것이다.

中共 9 全大會를 계기로 中共은 最大의 敵으로 分明히 蘇聯을 設定하고 있으며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提議를 反中共同盟體制로 규정하면서 공격하고 있다.

美·中共의 接近이 있는 후에는 그 以上の 紛爭이 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對立의 終熄이 아니라 非武力戰의 最後線에 이미 이르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제 이 兩巨國은 蜜月을 다시 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다만 全面戰으로의 發展이 억제되어 있을 뿐이다.

2. 兩國關係의 展望

가. 豫想形態 分析

中共과 蘇聯과의 關係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可能形態를 想定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의 中·蘇間의 關係는 다음의 形態中에서 어느 하나로 展開될 것이다.

- ① 改善 (和解指向性)
- ② 惡化 (敵對指向性)
- ③ 現狀의 慢性化 (競爭指向性)

앞의 類型化는 너무도 單純化한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로 兩國關係가 전개될 것 만은 分明할 것인바 그것들의 可能性을 각각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1) 關係改善의 可能性

中·蘇關係가 改善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全面戰으로까지는 擴大되지 않을 것이라는 主張은 1970年代에 美·中共關係가 改善되면서 부터 크게 活潑해졌고 또 어느 정도 正當化될 수 있게 되었다.

美國과 中共의 關係가 緊張指向的인 것에서 平和指向的인 것으로

바편 이상은 形式論理的으로 보면 三大國의 關係가 等距離關係로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等距離에 있게 될 때는 三國中에서 아무 나라도 자기들간의 戰爭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다. 美·中戰이 있게 되면 蘇聯만이 殘存하고 美·蘇戰이 있게 되면 中共만이 殘存하며 中·蘇戰이 있게 되면 美國만이 殘存하게 되기 때문에 三國의 戰爭選擧는 制약을 받게 마련인 것이다.

그에 따라 三國間에는 軍事的인 안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적어도 中·蘇間의 全面戰은 사라졌다는 論理가 成立된다는 것이다.

中·蘇間의 關係가 改善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學者들의 主張을 다음에 簡單히 紹介하면서 檢討를 進전시켜 보기로 한다.

먼저 美·中關係가 改善되는 것이 中·蘇關係를 改善시킬 것이라는 主張을 보기로 한다. 맥파콰(Roderick MacFarquhar)는 中共이 美國과 友好關係를 進전시키고자 한다면 蘇聯도 中共과의 關係를 증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事實을 認識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China's New Diplomacy — A Symposium — in Problems of Communism, Jan.-Feb. 1972). 화이팅(Allen S. Whiting)은 「美國과의 對결을 회피코자 하는 中共의 결정은 적어도 蘇聯과 아시아의 美軍基地에서 同時에 展開될 2個戰線의 戰爭威脅을 제거시키

따라서 中·蘇國境의 壓力에 어떤 相殺을 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美國과의 협상에서 蘇聯의 独占的 위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날 10年以上 破壞的인 活動水準에서 이루어졌던 中·蘇의 競争은 다시 50年代 中葉에 보였던 國家關係의 競争的 次元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고 보고 있다 (上揭의 Problems of Communism). 그리고 할페린 (Morton H. Halperin)은 「中共의 새로운 對美姿勢가 中·蘇關係에 있어서 어떤 實質的인 關係改善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論議에는 의문이 없지 않으나 交易을 包含한 外交的 交流에서 약간의 改善이 있을 것이며 이데오로기 論爭도 얼마간은 緩和될 수 있을 것이다. 또 中共에 대한 蘇聯의 軍事壓力도 감축될 것이 거의 確實하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上揭書).

한편 蘇聯이나 中共自身の 立場에서 볼 때 兩國關係가 改善되지 않을 수 없는 側面이 있다는 主張들을 몇개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모징고 (David Mozingo)에 의하면 蘇聯은 美國과 똑같이 中共과 關係를 改善하기를 원하고 있고 새로운 緊張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上揭書).

그러나 蘇聯도 다른 두 主役들을 속여 서로 敵對케 할 能力을

가져야 하며 日本을 이용하려고 생각하게 된다. 1920年代 初에 蘇聯共產主義者들이 日本에 대한 防波堤로서 中華民國을 支援하려 했지만 1970年에 와서는 蘇聯共產主義者들이 中共에 대한 防波堤로서 日本을 이용하려 한다 (맥파콰의 主張). 그런데도 할펀(A. M. Halpern)에 의하면 「短期的으로 볼 때 中・蘇戰爭의 可能性은 退潮하고 있는 것 같다. 兩側은 戰爭準備를 하고는 있으나 아무도 戰爭을 감행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以上の 諸主張들에서 보듯이 美・中・蘇 三國의 關係가 等距離化함에 따라 中・蘇戰爭의 可能性이 거의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兩國은 前보다도 改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 關係惡化의 可能性

美・中共關係가 改善되었다는 것에서 中・蘇關係도 改善될 것이라고 보는 樂觀論과는 달리 兩國間에는 緊張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見解도 적지 않다.

그러한 主張을 하는 사람의 하나로 우리는 워커(R. L. Walker)를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文化革命時期의 怒号하는 巨人보다 유엔安保理의 의석을 차지한 지금의 中共이 世界共產領導權을 내 세우는 蘇聯에게는 보다 심각한 挑戰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周恩來를 包含한 中共指導者들이 西方과 東歐의 蘇聯衛

星國에 대한 伸縮性을 蘇聯에 대한 協商背景力으로 간주하고 있다」
는 것이다. 즉 中共의 새로운 態度는 蘇聯에 대한 對決의 바탕
일 뿐이며 兩者의 和解를 가져오는 要因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中・蘇間에 緊張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또 다른 見解는 中國
問題專門家인 바네트(R.W.Barnett)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中共의 새로운 態度는 「本質적으로 蘇聯을 놀라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蘇聯의 戰略을 혼란에 빠뜨리고 어렵게 할 수 있다.

蘇聯은 國府에 代身하여 中共을 國聯에 加入시켰지만 만약 美國
과 日本하고 協力을 指向하는 움직임을 갖는다면 中・蘇緊張을 예
리하게 할 것이다. 協력이 軍事的性格을 가질 때는 豫防戰爭의 冒
險도 감행할 것이다」고 보고 있다.

바네트의 見解는 中共의 앞으로의 態度가 積極적인 反蘇나 아니
냐에 따라 中・蘇關係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 見解이다. 그 경
우 中共의 態度가 美國이나 日本과 反蘇的 軍事協力を 할 경우에
는 豫防戰爭이 蘇聯에 의해서 감행될 수 있다는 點에 우리는 注
目하게 된다.

中・蘇兩國關係가 緊張指向性을 갖게 될 것으로 보는 見解가 강
력하지 않으며 戰爭狀況을 豫想하는 것은 假定的 前提下라는 限定
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惡化論」은 그 強度가 낮다고 하

겠다.

한편 브르제진스키(Z.Brzezinski)는 中·蘇關係가 惡化될 것이 라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憂慮를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中共의 이니시어티브는 中·蘇關係의 將來에 대한 蘇聯의 염려를 깊게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表面上으로는 아무런 變化도 없을 것이지만 長期的인 眼目에서 觀察할 때 中共에 대한 蘇聯의 敵意는 깊어질 것이고 따라서 蘇聯의 念慮는 높아질 것이다.

이 蘇聯의 敵意와 念慮는 中共의 核能力의 成長에 상응하여 強度를 더해 갈 것」이라는 것이다.

結局 이런 主張들은 中·蘇關係는 앞으로 점점 惡化되어 지난날의 美·中共關係와 같이 언제나 戰爭의 可能性을 안고 있다고 보는 主張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現狀維持의 可能性

現狀維持論은 戰爭 또는 戰爭一步前의 狀態로 까지 이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完全한 和解關係로 發展할 수 없는 것이 中·蘇關係의 基本的인 特徵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고 있다.

事實 中·蘇關係는 美國과의 關係를 考慮할 때 戰爭으로 까지 發展하기는 어렵다. 또 그렇다고는 하나 中·蘇間의 基本的인 利害對立으로 보아 50年代에서 보였던 바와 같은 單一系列性에 따

르는 密着性을 가질수도 없을 것은 분명하다. 이 두가지 假定이 現狀維持論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現狀維持論이 앞의 두가지 점을 전제되는 假定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競争關係」가 繼續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急速한 緊張高潮(軍事性格)라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일뿐 競争性까지도 없으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메스(J.Domes)는 中共의 對美關係改善과 유고나 루마니아에 대한 支持가 蘇聯의 對中共介入의 可能性에 대한 中共執權層의 두려움을 減少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中·蘇紛爭이 解決될 기회가 늘어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中共의 새로운 姿勢에 따라 蘇聯은 中共의 늘어난 威脅을 두려워하여 中·蘇國境警備에 힘을 기울일 것이고 東南亞에서 자기 입장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인도와의 條約에 바탕을 두어 東南亞諸國과의 經濟交流를 신장코저 할 것이며 美國의 軍事的 駐屯의 減少를 틈타 安保協約을 맺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蘇聯의 움직임은 毛沢東死後까지는 自由中國을 安保協約에 包含시키지 않을 것이다.

앞에 지시한 도메스의 主張은 結局 中共과 蘇聯은 競争的인 立場에서 서로를 견제할 것이라는 主張이다. 따라서 當分間은 戰爭이 豫想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密着關係를 維持할 수도 없다는 것이

다.

한편 피츠제랄드(C.P.Fitzgerald)도 「中・蘇紛爭은 지금의 蘇聯執權層이 權座에 있는 限은 解決될 氣味는 없으나 훨씬 緩和될 것이다」고 보고 있다. 「中共의 환심을 살만한 變化들이 蘇聯에서 일어날 수 없으며 또한 中共에서도 文化革命以前의 態度로 돌아갈 可能性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共產世界는 競争的分裂狀態에 있는 것이다. 中・蘇紛爭은 무한히 繼續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도 결정적 勝利를 얻을 수 없는 戰爭의 事態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보고 있는 것이 피츠제랄드인 것이다. 따라서 現狀維持論에서는 惡化나 改善이라는 兩極狀態가 부정된다고 하겠다.

나. 競争樣相

以上에서 中・蘇紛爭의 向方을 세가지의 可能狀況을 設定하여 각각 그것의 可能性을 檢討하여 보았거니와 여기에서 暫定的이기는 할지 모르나 어떤 結論을 내려야 할 듯 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兩國의 當面한 目標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中共이 蘇聯과 關聯하여 追求하고 있는 目標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R.A.Scalapino의 主張).

(1) 歐亞大陸의 共產, 非共產諸國과의 同盟·反好關係를 견지함으로써 中共을 포위하려는 蘇聯의 企圖를 저지한다.

(2) 유고修正主義에 대한 非難의 철회와 헝가리 및 폴란드에 대한 蘇聯의 支配權에 挑戰하는등 東歐諸國에 침투하므로써 蘇聯에 反擊을 가한다.

(3) 美·蘇協力體制 즉 超大強國의 独占的 外交를 흐리게 한다.

(4) 理論的, 物質的 代案을 제시함으로서 共產世界 및 広範한 第3 世界에 있어서 蘇聯의 領導權에 도전한다.

(5) 蘇聯의 威脅을 제거하기 위하여 軍事力을 향상시켜 窮極的으로 蘇聯과 同等한 水準으로 높이는 目標을 追求한다는 것 등이 다.

한편 中共의 對蘇目標에 對立되는 것으로서의 蘇聯의 對中共當面 目標은 무엇인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中共의 잠재적 威脅에 直面하고 있는 中共周邊國들과의 일련 的 友好 및 安保協定을 增大시켜 中共을 포위한다.

(2) 東歐諸國의 自主獨立氣運을 減少시키기 위해서 西方側과의 和 解를 繼續 追求하며 窮極的으로 東歐地域 防衛에 대한 蘇聯의 確 固한 立場을 밝힌다.

(3) 위급한 國際問題의 解決에 있어서의 美·蘇關係의 優位性을

強調함으로서 美·中共關係改善에서 생기는 代償을 필사적으로 막는다.

(4) 選扞된 革命運動 특히 中東과 같이 蘇聯의 利益分野에 속해 있는 地域의 革命運動을 지원하는 同時에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의 蘇聯의 領導權을 確認한다.

(5) 中共에 대한 強力한 軍事力の 優位 특히 核分野에서의 優位를 維持한다는 것 등이다.

앞에 열거한 兩國의 相對國과의 關聯下에서의 目標에서도 볼 수 있듯이 兩國의 蜜月은 도저히 期待할 수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다만 熱을 더하는 對立이나 아니면 冷戰的인 競爭이나만이 問題로 남게 되는 것이다.

熱을 더하는 對立이 熱戰 즉 武力的인 全面戰으로 까지 發展하는 狀態라는 것도 쉽게 豫想되지는 않는다. 이미 지적했듯이 中共이나 蘇聯이 全面戰을 벌일 경우에는 兩國만이 共死하는 結果가 되고 蘇聯이나 中共이 모두 競爭者로 보고 있는 美國은 生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狀態는 中共도 또 蘇聯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兩國關係는 앞으로 數年間은 競爭的인 關係에 머물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競爭的인 또 冷戰的인 對立은 가령 다음의 여러 側面에서도 엿

볼 수 있을 것이다.

(1) 蘇聯이 中共周辺国 — 심지어 日本까지도 包含하여 — 을 동원해서 中共을 포위하려 하고 中共이 그것을 막으려는데서 対立과 競争이 일게 될 것이다. 이 경우 周辺地帯에 있는 小国을 둘러싼 中·蘇의 外交戰이 치열해 지리라는 것은 쉽게 豫測할 수 있다. 兩大共產國의 外交戰은 자연히 周辺小國으로 하여금 政治的 獨立(自主性)을 자극하는 結果와 小國에 대한 中·蘇로 부터의 支援增大라는 現象을 낳게 될 것이다. 支援은 軍事支援과 經濟協力이라는 形態로 나타나겠지만 前者는 友好國에 後者는 其他國에 적용될 것이다.

(2) 東國에서 確立된 領導權을 繼續, 維持하려는 蘇聯에 대해서 東歐에 대한 蘇聯의 独占的 影響力을 배제하려는 中共의 對立이 繼續될 것이다. 이 경우 東歐의 特殊性 때문에 蘇聯의 影響力은 크게 손상될 수 없을 것이 分明하다.

다만 東歐諸國의 自主性도 점차로 增大될 것이고 그에 따라 中共에 대하여 蘇聯에 비하면 너무도 일방적으로 무시하던 態度를 지양할 것이다.

(3) 美國을 보다 自國에 가깝게 하려는 中·蘇의 競爭이 점차로 增大할 것이다. 蘇聯으로서의 美國이 中共과 近接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대신에 蘇聯과 協調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직도 多大하다는 點을 確認시키려고 努力할 것이다.

事實上 美國이 中共과 對話와 交流를 始作했을 때에 얻은 것 (그 가운데서 가장 큰 收穫은 越南戰의 終熄이다) 을 제쳐 놓으면 앞으로는 아무리 近接한다고 하더라도 蘇聯과의 關係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凌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로 이 點을 蘇聯은 노리고 있다. 그 點을 利用하여 美·蘇의 優位性을 繼續 維持하려는 것이 蘇聯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中共은 주로 中小國의 影響力을 등에 업고 또 現美的으로 가장 問題性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의 大部分이 亞洲와 關聯된다는 것을 利用하여 美國의 對中共 近接을 더하게 하려 하고 있다.

美國이 70年代 初에 보였던 바와 같은 態度를 취한다면 아마도 蘇聯의 國際的 地位는 매우 低下(相對的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될 것이 分明하다.

여기에서 美國은 「敵의 敵은 友邦」이라는 論理의 對象國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 이른바 第3世界에 대한 中·蘇間의 競爭은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等質性이라는 點에서는 中共이 유리한 立場에 서게 될 것이나 經濟 및 軍事的 援助를 提供할 수 있는 點에서는

蘇聯이 유리한 立場에 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兩國의 第3世界에 대한 外交競爭은 매우 치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에서 그러한 現象이 더욱 심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中東은 蘇聯의 일방적인 影響圈이 되어 있고 아프리카는 兩國에게 있어 重大한 利害地域이 아니므로 外交戰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아시아는 그런 곳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아시아는 蘇聯이나 中共에게 있어 모두 重要한 地域이다. 그리고 兩國中 어느 한 나라도 이 地域에 대한 일방적인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는 處地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相當한 期間동안은 아시아에서의 蘇聯과 中共의 競爭은 매우 심각한 樣相으로 나타날 것이다.

(5) 中·蘇間의 競爭은 주로 外交戰이라는 形態로 表面化되겠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軍事力增強競爭도 繼續적으로 增大될 것으로 보인다. 蘇聯과 中共間에 經濟力競爭은 지금의 現實로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外交戰을 뒷받침하는 힘은 軍事力에 거의 의존하는 樣相을 보일 것이다.

蘇聯은 核戰力の 優位를 繼續 維持하려 할 것이고 中共은 長距離 運搬手段의 開發을 서두르면서 兵力優位로 대처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中·蘇間의 豫想되는 競爭樣相을 살폈거니와 結局 兩國의 對立은 주로 外交(政治)戰의 形態로 나타날 것이다. 즉 軍事的인 衝突은 때에 따라 極히 小規模로 國境上에서 일어날 망정 全面戰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外交戰이 일어날 境遇 中小國들은 여러 면에서 많은 影響을 받을 것이 確實하다.

第 3 章 紛爭과 北韓의 態度變化

1 . 北韓의 選擇肢

2 . 兩國에 대한 態度의 展開

1 . 北韓의 選擇肢

北韓과 中·蘇間에 제도적인 紐帶의 基礎를 이루고 있는 것은 北韓이 61年 여름에 소련 및 中共과 개별적으로 맺은 軍事同盟이다. 이들 同盟이 三者를 연결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三角關係의 將來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要素가 되리라고 確言할 수는 없다.

三角關係를 지배하는 것은 형식적인 同盟體에 있다가 보다는 三者間에 개재하는 이익이 무엇이냐에 있다고 하겠다. 韓國戰爭때에 소련이 物質적으로 北韓을 지원하고 中共이 兵力支援을 해준 것은 어떤 條約上의 義務때문이었다기 보다는 利益이 개재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中共이 政權樹立后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韓國戰에 介入한 것은 美國의 軍事進擊으로 부터 滿州地方의 重工業地帶를 보호하고 中共 自身の 安全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리고 소련의 支援은 第2次大戰의 다른 角度에서의 延長이라는 思考下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물론 中·蘇가 韓國戰時에 北韓을 지원한 것은 개별적인 利益때문만은 아니다. 그 때에는 소련의 領導下에 國際共產主義運動이 一元的으로 전개되었으며 兩極의 冷戰이 高潮되어 가고 있었던 때이다.

이렇게 韓國戰爭時의 三者는 眞摯적인 유대를 기초로 하는 共同 運命體的인 結合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中共이나 소련이 그 때에 北韓을 지원한 것은 비록 動機에 있어서 차이나는 점이 있었 다고는 하지만 매우 적극적이었고 어느 정도「犧牲的」인 것이었으 며 성격상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中共과 소련의 北韓에 대한 支援이 「全幅的」이었기 때문에 兩 國의 南韓에 대한 態度는 상대적으로 敵對의 全面性을 갖는 것이 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兩國이 南北韓에 대하여 취한 態度는 「零和狀態」(Zero sum)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中蘇紛爭과 더불어 共產圈이 다원화함에 따라 三國關係는 鐵桶의 一體性을 유지하기는 힘들게 된다. 北韓이 1966年 8月에 이른바「自主路線」을 내세운 것은 中·蘇關係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北韓이 中·蘇兩國에 대해서 어떤 態度를 취해 왔는가를 살펴 봄으로서 逆으로 中·蘇紛爭의 北韓에 대한 影響을 찾는 하나의 길을 모색해 볼수도 있을 것이다.

中·蘇紛爭속에서 北韓이 취할수 있는 길은 다음의 세가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第一路線 --- 蘇聯에 偏向하는 길

第2路線 --- 中共에 偏向하는 길

第3路線 --- 中立을 지키는 길

中·蘇에 대하여 北韓이 취할수 있는 길은 앞의 세가지를 들었
거니와 그것들이 명확히 區分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
路線의 성격상 2個의 代案이나 3個代案全部를 동시에 추구할 수
는 없다는 것과 또 어떤 하나의 路線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완전
히 다른 길을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向蘇路線을 추구할 때 中共과 敵對的일 수 있다든지 自主성을
완전히 버릴수 있다든지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인 뜻밖
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代案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으나 차례로 취할수는 있다. 소련에 기울기도 하고 中共에 기
울수도 있으며 또 때로는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北韓이 中·蘇對立의 도가니 속에서 어떤 一方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는것은 北韓이 지니고 있는 中·蘇 兩國과의 罅을
수 없는 特殊關係때문이다.

그러면 먼저 北韓과 소련이 어떤 特殊 關係下에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소련은 北韓에게 있어서는 産波의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소련의 힘이 없었으면北韓의 誕生은 있을 수 없었다.
역시 소련의 支援에 의해서 金日成勢力이 得權할 수 있었다.
金日成이 抗日活動을 했다고 하는 宣傳이 그의 執權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北韓에서의 共產革命은 「自生
的」인 것이 아니라 「他生的」인 것이었다. 外部 즉 소련이 부
여한 革命이고 執權이었던 것이다.

政治的으로北韓에 共產政權을 세우고 金日成의 執權과 그 維持
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소련은 文化와 기타의 면에서도北韓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소련은北韓을 蘇聯化함으로서北韓
地域은 소련식의 文化가 부식되고 있다. 政治制度和 裁判制度 및
敎育과 一般生活에 이르기까지 文化는 거의가 소련식의 것이다.
여기서北韓과 소련은 不可分性을 지니게 마련인 것이다. 經濟
的으로도 戰后復舊를 위한 支援은 크게 소련에 의해서 이루어졌
던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北韓과 中共의 關係도 뗄수 없는 密着性을 갖
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

韓國民族은 中國大陸과 文化的으로나 歴史的으로 밀접한 關係를
유지하여 왔다. 解放后에 소련이 親蘇聯化를 進행시켰다고 하지만

中国的인 文化殘影은 너무도 많이 남아 있었다.

韓國戰爭은 北韓과 中共의 관계에 새로운 紀元이 되었다. 消滅의 危機에 처한 北韓을 中共軍이 구해 줌으로서 兩者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것으로 급속히 변하였다.

北韓과 中共의 密着은 戰爭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中共이 北韓의 복구를 위하여 대대적인 원조를 제공함으로서 더욱 촉진되었다.

北韓과 中共이 不可分の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데는 몇가지 중요한 要因들이 있다. 兩者가 당면한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첫째로 兩者는 이른바 「美帝」라는 共通의 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中共은 美國때문에 台灣을 해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北韓도 美國때문에 赤化統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美國은 兩者에게 있어서 똑같은 敵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兩者가 모두 開發途上국이며 貧困이라는 점이다. 「없는 나라」로서의 이 兩者는 「있는 나라」인 소련과는 다른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다. 共通의 位置때문에 兩者에게서 일어나는 이데오르기도 共通性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세째로 北韓을 이끌고 있는 金日成의 成長이 中国(滿州)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中共과 北韓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고 보겠다. 學習過程과 活動過程에서 친숙해진 中国的인 風土는 金日成으로 하여금 적어도 反中共的인 態度를 취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北韓은 소련과 또 中共과도 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北韓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北韓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길은 中·蘇紛爭에 대한 中立的인 態度이다. 완전한 中立이 있을수도 없겠으나 적어도 어느 一方에 밀착하는 態度를 지양하게 마련이다. 뒤집어 말해서 中·蘇紛爭은 北韓으로 하여금 中立的인 政策을 추구하게 하였다고 하겠다.

內
2
J

2 . 兩國에 대한 北韓態도의 展開

紛争者인 中共과 소련에 대한 北韓의 態度는 앞에 제시했던 세 가지 選擇肢를 彷徨하는 것이었다 . 때로는 거의 中立的인 態度를 취하고 때로는 비교적 親中共的이고 또 어떤 때는 소련과의 和解를 추구했던 것이다 . 이러한 北韓의 態度는 時期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

가 . 50年代 : 中立

1956年 2月에 있었던 第20次 소련共産党大會를 계기로 中·蘇 紛争이 노골화하였거니와 거기에서 제기된 스탈린格下(個人崇拜批判)은 北韓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다 .

후루시초프의 스탈린格下는 延安派를 중심으로 하는 反金勢力을 고무하였고 그들의 反金的인 움직임이 싹텄다 . 그 결과로 56年 4月에 열린 北韓勞動党 第3次 大會에서는 金日成의 肖像化조차 철거되고 있었다 .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勞動新聞은 金日成의 獨裁를 옹호하고 나섰다 (7月 16日字社說) . 비록 同紙가 얼마안있어 北韓의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소련의 援助에 찬사를 표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表面的인 것이었다 .

反金勢力을 완전히 제압하여 個人崇拜로의 길을 내부적으로는 마련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二重的 態度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反個人崇拜에 걸음으로 찬성하여 소련과의 밀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中共과는 緊張을 갖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国内政治的인 處地로 보아서 中共路線에 선뜻 동조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内部에서는 소련의 주장과 다른 方向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反蘇的인 態度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1956 年에 헝가리와 폴란드에 대한 武力行動을 지지하고 57 年 10 月革命 記念式에는 金日成 스스로 祝賀使節로 가는등 對蘇態度는 계속하여 우호적이었다..

1958 年에 이르러서는 中共에 대한 友好態度도 증진되었다. 對 內政策에 있어서 中共方式을 모방하였다. 이해에 周恩來가 平壤을 방문하고 (2 月 14 日 - 21 日) 金日成이 北京을 방문 (11 月 ~ 12 月) 하는등 兩者의 관계는 매우 깊어져 갔다. 그러나 金日成 毛沢東共同聲明에서는 「 소련이 지도하는 社會主義陣營의 團結」을 내세우고 있었다. 이것은 北韓과 소련의 관계가 아직도 깊다는 것을 뜻한다. 소련의 對北韓 軍事援助가 증대되고 文化 및 經濟 協力은 물론이고 原子力의 平和利用을 위한 技術援助의 제공등 兩

국關係는 계속 긴밀하였다.

1959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第21次 소련 共産党大会에 金日成이 직접 참석하여 소련을 찬양하였다. 中·印 國境衝突이 일어났을 때도 소련이 中立을 취하자 北韓은 中共을 지지하면서도 印度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이 事件이 中·蘇紛争을 가속화시킨 하나의 큰 契機였다는 점에서 北韓이 그 事件에 대하여 취한 態度에 우리는 注目하게 되는 것이다.

北韓의 兩國에 대한 對等友好는 1961년에 맺은 同盟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그러나 同盟을 兩國과 맺은 후 부터는 北韓의 對等友好政策이 조금씩 변한다는 것에 우리는 關心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나. 60年代前半: 親中共化

1962년부터 北韓은 中共편에 서기 시작했다. 소련에 정면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소련과의 관계가 줄고 中共과의 접촉이 크게 늘었던 것이다. 그리고紛争에 있어서는 분명히 中共편을 들기 시작했다. 中·蘇紛争에서 北韓이 中共편을 들게 된 것은 中·印衝突에 대한 소련의 態度, 쿠바危機에서 보인 소련의 和解主義 東歐共産党들의 北韓勞動党에 대한 冷待등 때문이다.

1959 年에 있었던 中·印衝突 때에는 中共에 好意的이었지만 印度를 정면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었는데 1962 年에 있었던 国境紛争에서는 印度를 정면으로 비난하고 中共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소련은 그 事件에 中立的이었던 것이다. 소련의 中立的 態度에 失望한 北韓은 中共에 기울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1962 年에 있었던 古巴危機 때에 보인 소련의 后退는 北韓에게 큰 자극을 주었고 그에 따라 中共과 路線을 같이하기로 생각했던 것이다.

1962 末頃에서 63 年初에 걸쳐 열린 東歐諸国の 共産党大会는 中共편인 北韓共産党을 노골적으로 冷待하여 大会에서의 祝賀演說마저도 許容하지 않았다.

앞에 列擧한 事實들로 인해서 北韓은 1963 年부터 노골적으로 中共편에 서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63 年 6 月에는 崔嵬健등이 中共을 방문하고 9 月에는 劉少奇등이 平壤을 방문하는 등의 兩者間의 友誼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서 소련과의 관계는 64 年부터 크게 악화되어 비록 간접적인 표현을 썼지만 소련을 비난하기 까지 하였다. 1 月 27 日 字 「로동신문」은 古巴에서 소련이 후퇴한 것을 비유하여 「現代

修正主義者들은 피압박민족의 帝國主義에 대한 勝利爭取를 방해했다.」고 꼬집고 印度에 軍援을 제공한 것을 비유해서 「現代修正主義者들이 반동분자들에게 원조를 제공하여 社會主義兄弟國家에 대항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일까지 생겼다.

64年 9月7日字「로동신문」은 소련을 「大國國粹主義」라고 지칭하고 「소련의 經援은 平壤에 도움을 준것보다 害를 더 많이 끼쳤다」고 비치고 있다. 그리고 12月 21日字「로동신문」은 스탈린을 「위대한 맑스·레닌주의者이며 감히 넘볼수 없는 로동계급의 革命戰士」라고 격찬함으로서 소련의 지도층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와같이 中·蘇紛爭의 도가니속에서 64年은 北韓이 노골적으로 소련을 비판한 중요한 연도로 기록될 수 있다.

다. 60年代後半: 對蘇和解的 中立

60年代 前半에 北韓이 소련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中共편을 든 것은 中共의 主張에 전적으로 동조해서라기 보다는 소련의 北韓에 대한 불만족스런 態度때문이었다. 그리고 金日成 自身과 그 體制의 存立에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中共에의 密着이 그렇지 않은 狀態보다 不利益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뒤집어서 소련과의 利解가 이익을 가져 온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올만한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하나는 北韓이 추진하고 있는 7 個年計劃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中共도 경제적인 곤란에 있었기 때문에 7 個年計劃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者는 소련 뿐이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越盟에 대한 소련의 적극적인 支援을 들 수 있다. 北韓과 많은 점에서 共通點을 지니고 있는 越盟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대적인 援助를 해주고 있음을 본 北韓으로서 中共보다도 소련이 더 필요한 存在임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国聯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는 소련의 힘이 北韓의 국제진출에 도움을 주고 国聯에서의 位置를 개선하도록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中共은 아직도 国聯밖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事情에서 후르시초프가 退陣하는 계기가 생겨 소련과 北韓은 다시 화해하게 되었다. 和解의 實證은 65年 2월에 新首相 코시긴이 平壤을 방문하고 5월에 崔光이 소련을 訪問함으로써 보여지게 되었다. 崔光의 訪蘇時에 새로운 對北韓軍援協定이 맺어졌다는 점은 兩者의 和解를 완전히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 후에 계속적으로 소련과의 再和음이 진행되어 갔다. 그리하여 北韓은 완전히 中立的인 立場을 확립한 듯 하다.

라. 70年代 : 中立

70年代에 들어 오면서 美国과 中共이 화해하는 過程은 北韓의 政策態度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兩國의 和解에 北韓은 처음에는 당황하면서도 달갑지 않게 여긴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닉슨의 北京訪問에 대해서 그 決定이 있던 후 얼마동안은 전혀 논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美·中共和解가 낳은 하나의 產物은 中共의 國聯加入이었다. 中共이 유엔에 가입함에 따라 유엔을 통한 또는 유엔에서의 北韓의 位置改善을 위한 길이 더욱 열렸고 複數化되었다. 소련에 의지해서만 자기의 뜻을 펼수 있었던 北韓은 이제 中共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엔뿐만 아니라 A. A 群의 많은 國家로의 浸透도 그러하다. 이런 狀況의 展開는 北韓으로 하여금 다시 中共쪽에 기울게 하는 條件이 되었다.

그리하여 70年代에 와서는 60年代後半보다는 덜 親蘇的이고 더 親中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60年代初에 보였던 바와 같은 親中化일 수는
없는듯 하다. 아마도 北韓은 지금의 형편과 趨勢로서는 어느
一國에 크게 기우는 行動은 할수 없을 것이다. 다만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다.

第 4 章 紛爭의 國際政治 및 北韓에 대한 影響

1 . 國際政治에 미치는 影響

2 . 北韓에 미치는 影響

1. 國際政治에 미치는 影響

가. 國際政治 一般에 미치는 影響

兩大國의 紛爭이 그 동안 國際政治에 미친 影響은 대단하다. 그러한 歷史的 實證은 勿論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影響現象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울러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 경우 어떤 影響現象과 거기서 파생되는 波及影響現象까지도 끄집어 내어 보기로 하겠거니와 國際政治全般에 미치는 큰 영향으로는 다음의 몇가지가 있으며 또 있을 것이다.

(1) 國際權力關係의 多元化和 國利를 우선시키는 自利的 國家主義를 促進하고 있다.

紛爭을 계기로 해서 自由와 共產의 두 世界를 絶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領導權者는 없게 되었다. 兩極化는 多元화로 변모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多元化和 關聯해서 大部分의 國家는 이데오로기와 體制보다도 國利를 우선시키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더욱 더해질 것이 分明하다.

多元化和 國家實利主義는 어떤 派生效果를 가져 올 것인가!

① 世界運命을 美·蘇만이 결정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아시아의 運命決定에 中共의 發言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韓半島

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㉞ 強大國이 自國의 國利에 입각한 新興國政策을 취하게 됨으로서 新興國들은 점차로 自主, 自決態勢를 갖추어 가게 된다.

強大國의 論理와 弱小國의 論理가 합치되지 않는 現象(論理의 葛藤)이 비로소 있게 되는 것이다.

(2) 共產主義的 國家 및 黨의 分裂로 통일된 國際共產主義運動이 어려워졌다.

蘇聯과 中共의 指導者를 包含하여 모든 共產主義者들은 世界赤化의 필연성을 믿고 있고 그것을 促進하기 위한 國際主義를 主張하고 있지만 兩大 共產國의 對立은 世界의 共產黨과 共產國家를 적어도 3個勢力(親蘇, 親中共, 中間勢力)으로 分裂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分裂로 생기는 波及影響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㉟ 同一國家內에서 또는 世界의 各國이 分裂함으로써 共產化는 한계점에 이를 것이다. 第2次大戰後에 急速히 이루어진 各國에서 共產化는 紛爭이 있기 前까지 매우 活潑하였는데 그러한 膨脹力은 紛爭과 더불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㊱ 世界의 共產化는 요원한 問題로 되어 버릴 것이고 資本主義國家內에서의 共產勢力擴張도 外部(蘇聯이나 中共)로 부터의 支

援보다는 自体内의 内部事情에 좌우될 것이다. 즉 蘇聯이나 中共의 支援이 資本主義国家内에서의 共產勢力의 增大에 決定的인 要素가 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3) 美·中·蘇 三大국의 平和共存이 確立되면서 三大국間의 武力戰은 사라지게 되었다.

三大국 모두가 前面과 後面에 兩面敵을 가질 수 없는 立場에 놓이게 되었다. 그에 따라 三國間의 距離는 等距離化할 수 밖에 없으며 그를 위해서는 平和共存이 不可避하다. 그에 따라 三大國은 武力戰으로 대결할 수 없는 것이고 外交戰만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들 사이에 共存과 和解體制가 굳어짐에 따라 부수되는 現象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三大국間의 武力戰이 없을 것은 물론이고 특정 地域에 있어서의 制限·局地戰에 대해서도 美·蘇·中共軍이 투입되어 直接的인 戰鬪行爲를 벌이는 일은 거의 상상할 수 없게 된다.

㉡ 平和共存的인 指向이 全世界的인 現象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강한 競争國」을 가진 國家들 - 예컨대 分斷된 國家나 敵對性이 큰 國家들 - 의 國際社會에서의 外交戰이 치열하게 展開될 것이다.

㉢ 三國間의 武力戰이 不可能해지면서 「緊張의 擴大現象」에

따라 中小国間의 武力戰이 共存의 世界的 完成化가 이루어지는 過程에서 일어날 可能性은 전보다 오히려 크게 된다. 共存의 世界化가 完成된 後에는 武力戰的인 要素에 外交的 要素가 代置될 것이다.

㉔ 共存指向性이 超理念的 國家交渉을 可能하게 하여 지금까지 닫혔던 自由國家와 共產國家와의 門戶가 크게 열리게 될 것이다.

이 경우 積極反共國家에 體制再編과 理念調整의 問題가 야기된다.

나. 三大國의 政策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본 國際政治全般에 주는 中·蘇紛爭은 그것과 關聯하여 美國이나 蘇聯, 中共등 主要國家의 對外政策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음에서 그것을 열거하여 보기로 한다.

(1) 蘇聯이 中共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東南亞諸國과의 協力을 위한 努力을 增大할 것이다.

蘇聯이 1969年6月7日(브레즈네프)에 東南亞集團安保를 제의하고 東南亞諸國에 積極적으로 進出하고 있는 것은 對中共包圍網을 구축하기 위한 努力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69년에 印度와 友好協力條約을 맺어 準同盟的인 關係를 갖고 있는 것이라든지 日本에 대한 시베리아開發權賦與등은 蘇聯의 對中共包圍 努力의 象徴이

될 수 있다. 蘇聯이 아시아에 積極的인 關心을 가지면서 對中共 包圍網을 구축하려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結果가 派生될 것이다.

㉑ 東南亞에서 現在 美國이나 英國이 이미 가지고 있는 利益을 認定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美國의 아시아로 부터의 撤退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韓半島의 경우에 있어서도 該當될 수 있는 論理이다.

㉒ 地中海의 蘇聯艦隊와 東海艦隊(極東艦隊)를 印度洋과 西太平洋에서 連結하려 할 것이다. 이것의 連結을 위해서는 이 地帶內에 들어 있는 國家들에 대한 積極的인 接觸이 不可避하다.

㉓ 크메르, 버마, 라오스 등의 中立國에 대한 中共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하여 美國과의 共同으로 牽制作用을 할 것이다.

(2) 中共의 아시아諸國에 대한 外交活動이 보다 積極化되어 아시아的인 大國으로서의 名實相符한 위치를 굳혀 갈 것이다.

蘇聯이 日本을 對中共包圍手段으로 利用하기 위하여 諸利益(시베리아開發과 航路의 開設등)을 提供하고 있음에 비추어 中共의 對日接近도 더욱 活潑해질 것이다. 蘇聯으로 부터의 技術導入과 物資支援이 中斷된 処地로서는 가장 便利한 日本의 協力을 찾게 될 것이다.

또한 東南亞는 中共의 重要한 進出口인 때문에 蘇聯의 包圍網을

뚝으려면 同地域으로의 進出에 힘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中共의 政策에서 波及되는 現象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㉑ 아시아에서의 勢力再編成을 둘러싼 蘇聯과 中共의 競爭이 가열될 것이다.

㉒ 中共의 反美的 攻撃性向이 줄어들면서 蘇聯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의 美國의 完全한 撤退를 바라지 않게 될 것이다.

㉓ 中共의 아시아諸국에 대한 積極的인 外交活動은 자연히 中共周辺국들의 親中共化 또는 「脱反中化」現象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㉔ 蘇聯에 크게 뒤지고 있는 核分野에서의 開發을 서둘러 쳐어도 ICBM水準에 까지 이르는 核体系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것은 蘇聯과 美國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諸국에 대하여 政治的으로 큰 意味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美國의 中共과의 共存政策이 繼續 追求될 것이지만 蘇聯과의 基本的인 關係가 소홀히 될 수는 없게 된다.

美國으로서는 다른 두개의 強大국이 그러하듯이 二個의 競爭國을 가지고 있으므로 蘇聯과 中共의 어느 쪽에 크게 기울는 行勳을 취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中共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蘇聯을 利用

하게 되고 蘇聯을 억제하기 위한 手段으로 中共을 利用하게 된다.

中共과의 不安한 關係가 일단계적인 安定을 이룬 지금으로서 美國은 蘇聯과의 軍事的 問題를 解決해야 하고 다시 中共과 經濟接近을 하게 될 것이다. 美國이 蘇聯뿐만 아니라 中共과도 共存政策을 추구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現象이 부수될 것이다.

㉔ 적어도 中共에 대해서 軍事的인 威脅이 될 수 있는 措置를 美國이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戰略 — 戰術水準의 것까지도 그러하겠지만 — 武器의 아시아 配置에 어떤 제동이 가해질 것을 뜻한다.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艦隊 및 航空機配置에 있어서도 對中近接을 삼가게 될 것이다.

㉕ 美國의 對中和解와 아시아에서의 役割縮少는 自由國과 中共의 改善을 促進하게 될뿐만 아니라 理念과 體制에 따르는 行動의 制約을 없애게 될 것이다. 이 경우 自由國家의 北韓과의 交流나 關係의 改善이 있을 수도 있다.

以上에서 보았듯이 中・蘇紛爭은 國際政治에 매우 큰 影響을 미치고 또 미칠 것이다. 그러나 自由國의 對共國接近은 共產國의 對自由國接近보다 더 積極性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2.北韓에 미치는 影響

北韓은 政權의 樹立과 維持過程에서 蘇聯과 中共의 두 나라로부터 큰 支援을 받아 왔고 그에 따라 政治, 經濟, 軍事의 모든分野에 걸친 影響을 받은 것이 事實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支援을 받고 있는 中·蘇兩國이 紛爭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北韓은 그에 따르는 影響을 적지 않게 받게 될 것이다. 이를 政治, 經濟, 軍事分野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가. 政治分野의 影響

中共과 蘇聯의 紛爭이北韓의 政治에 미치는 影響을 우리는 세가지 側面에서 考察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北韓의 政治路線에 미치는 影響이고 다른 하나는 權力構造에 미치는 影響이며 또 다른 側面은 對外行動에 미치는 것이다.

(1) 政治路線에 미치는 影響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서 우리는 自主路線을 들 수 있는바 이路線은 中·蘇間의 和解復歸가 거의 不可能한 것이기 때문에 繼續하여 추구될 것이다.

北韓이 自主路線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는 이미 示唆했듯이 兩大共產國의 틈바귀에서 平壤政權의 存立을 위해서 不可避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른바

思想의 主体性

政治의 自主

經濟의 自立

国防의 自衛를 推進하는 路線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自主路線을 택함에 따라 北韓自体内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事態發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㉑ 北韓의 지도자나 住民이 統一問題를 「南北韓의 決判」概念에 따라 解決하려는 意志를 굳히게 될 것이다.

㉒ 排他的 民族主義의 思想이 모든 政策判斷의 기초가 되어 行動의 硬直化와 強硬政策(對美, 對日, 對韓)이 繼續 추구될 수 밖에 없다.

(2) 中·蘇紛爭으로 인해서 權力構造에 많은 變化가 일어나게 되었고 權力의 一人으로의 集中化가 뚜렷해지게 되었다.

親中共系나 親蘇系가 도태되고 金日成을 中心으로 하는 새로운 權力構造가 確立되었다. 親中派나 親蘇派中에서 어느 한쪽에 기울게 重用하면 兩國中 一國의 反感을 초래하게 되고 또 兩派를 均衡있게 登용하면 金日成自身の 기반이 弱化될 뿐만 아니라 兩國의 作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金日成은 兩派抹殺을 進행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一人統治와 族閥主義的인 性格이 두드러진

權力構造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어떤 부수적인 現象을 불러 일으키는가

㉑ 金日成偶像化를 위해서 모든 社会心理의 操作과 社会 및 学校教育이 지향하게 된다. 그에 따라 共產主義의 理論教育보다도 金日成 및 그의 家族의 行蹟과 語錄등에 대한 教育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㉒ 北韓의 모든 政策이 金日成의 思考方式에 따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金日成의 性品과 社会的 背景(Social origin)이 北韓의 路線決定에 절대적인 比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3) 中·蘇紛爭은 北韓의 對外活動이 독자성을 갖게하는 契機와 触媒劑가 되고 있다.

北韓은 中·蘇間에 紛爭이 고조되는 때에 對共產圈外交에서 中立的인 自主性を 確保해 갔다. 蘇聯의 스탈린格下가 金日成体制에 불리하다고 느꼈을 때 中共을 지지했지만 北韓의 經濟計劃이 円滑히 遂行되지 못하자 蘇聯으로 기울었고 日本이 韓国安保에 積極的인 關心을 표명하면서 부터 中共에 보다 가까운 姿勢를 취하는등 매우 신축적이고 中立的이었다. 即 北韓이 蘇聯과 中共에 대하여 취하는 外交姿勢는 自体内의 事情에 따라 달라졌지만 伸縮性이 있었는데 그 傾向은 相當한 期間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紛爭이 北韓의 外交路線을 自主的이게 하였거니와 그것이 어떤 부수적 結果를 낳게 할 것인가

㉓ 「自主」라는 表明이 新興國家로 부터의 共感을 불러 일으켜 新興國中 反植民經驗을 가졌던 國家에 대한 北韓의 진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事實 北韓은 蘇聯이나 中共의 統制를 거의 받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外交活動을 展開해 가고 있고 그것이 成功을 하고 있는 것이다.

㉔ 蘇聯과 中共의 競争性 때문에 兩國의 支援을 받으면서 對外進出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A . A 地域에는 中共에 편승하고 歐美地域에는 蘇聯에 편승하여 큰 外交進出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結局 中・蘇紛爭은 北韓으로 하여금 自主路線을 택하게 하고 金日成體制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고 独自の 外交를 하게 하였다.

나. 經濟分野의 影響

紛爭은 北韓經濟에 주로 불리한 影響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急激한 衝擊이 몇번이고 일어나게 할지 모른다. 이제 影響을 資本, 技術, 對外經濟라는 세 가지 側面에서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1) 蘇聯의 經濟支援이 부진하여 때때로 重大한 衝擊을 주고 있다.

北韓經濟를 위한 資本支援은 주로 蘇聯으로 부터 提供되었는데 蘇聯이 62년에 이르러 援助를 中斷하자 北韓經濟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66年以後에 援助가 再開되기는 하였으나 北韓의 態度에 따라 그것의 中斷과 削減은 豫想할 수 있는 일이다.

中共의 資本援助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援助의 不振은 다음과 같은 波及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

㉑ 資本不足을 메우기 위하여 다른 國家로 부터의 資本補充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自由國家中에서는 日本이 큰 考慮對象國이 될 것이다.

㉒ 防衛費와 投資費에 대한 繼續的인 增額投資가 어려워질 것 이므로 軍需產業的인 지금의 經濟體制를 그대로 維持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防衛費支出은 억제할 수 밖에 없다. 防衛費 支出抑制가 어려운 狀況일 때는 住民의 消費生活은 繼續하여 억제될 수 밖에 없고 生活抑制를 위해서는 不滿이 생기지 않도록 緊張感을 繼續 불러 일으켜야 된다.

(2) 紛争에 따르는 技術支援의 不振은 重化學工業發展에 限界性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中共과 蘇聯(그 가운데서도 蘇聯)의 技術的인 援助는 北韓工業을 育成하는데 있어 큰 몫을 차지하는 要素였다. 그런데 兩國紛

爭을 계기로 생긴 獨自性 또는 排他的이고 맹목적인 民族主義는 技術導入의 窓을 막는 結果가 되었다. 蘇聯의 경우도 62年부터 中斷된 것이 66년에 再開되었지만 滿足할 狀態에 있는 것이 아니다. 技術援助의 不振은 다음과 같은 波及影響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㉑ 電子工業을 비롯한 高度의 化學 및 機械等 重化學工業發展에 큰 지장을 받을 것이다.

㉒ 重化學工業의 繼續적인 發展을 위해 技術開發 및 技術導入을 위한 政策展開가 더욱 活潑해질 것이다.

(3) 兩國對立이 繼續됨에 따라 對外經濟關係가 蘇聯과 中共偏重에서 多邊化할 것이다. 물론 北韓의 對外經濟依存度에 있어 蘇聯이 차지하는 큰 比重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狀況에서 波及되는 影響으로 다음의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㉑ 北韓經濟가 蘇聯에의 依存性이 적지 않기 때문에 蘇聯이 추구하는 政策과 正面으로 對立되는 政策을 추구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㉒ 非共產國과의 交易擴大에 힘쓰게 될 것이고 이 경우 政治的 配慮도 하게 될 것이다.

다. 軍事分野의 影響

中·蘇間의 紛爭이 北韓軍事에 어떤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關心있는 事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戰爭과 관련되며 따라서 對南戰略의 方向과도 크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影響은 軍事路線에 미치는 것과 軍事能力에 미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A. 軍事路線에 미치는 影響

(1) 自衛路線을 繼續 추구하면서 강화하게 될 것이다.

兩大支援國의 紛爭이 絶頂에 올라가는 過程에서 北韓의 自衛路線은 정비되어 갔다. 62年에서 65年에 이르는 期間에 全國의 要塞化, 軍事施設의 地下化, 軍의 幹部化, 勞農赤衛隊의 組織 등의 自衛路線을 強力히 推進했고 그것은 그 후에도 繼續되고 있다. 이때의 自衛路線은 兩國紛爭이 契機가 된 것이지만 紛爭이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繼續하여 채택될 것이다.

自衛路線이 추구됨에 따라 나타나는 波及效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㉑ 政治体制나 權力構造가 軍事的 性格의 것을 維持하거나 또는 그러한 方向으로의 指向性을 強하게 나타낼 것이다. 그에 따라 對南路線의 強硬性은 잠재하기 마련이다.

㉞ 빨치산出身 또는 軍部出身이 主力을 이루는 權力構造가 繼續될 것이다.

(2) 中共이나 蘇聯이 모두 北韓의 軍事行動을 完全히 統制할 수 없게 된다. 兩國은 自國의 路線에 北韓으로 하여금 完全히 동조하도록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兩國의 統制力은 限界性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EC-121 事件에서 보인 蘇聯의 對北韓統制力은 그것을 입증한다. 兩國의 統制力弱화에 따라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結果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상상할 수 있다.

㉟ 北韓이 獨自的인 軍事挑發을 可能하게 할 것이다.

㊱ 그러나 兩國의 現狀維持政策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全面南侵 같은 것을 強行하는 데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3) 全面南侵戰略의 채택을 어렵게 하지만 局地挑發 또는 單發挑發, 武裝工作 등의 挑發은 繼續될 것이다.

韓半島(특히 北韓地方)는 中共으로 보나 蘇聯으로 보나 重要한 地方이다. 그러므로 兩國의 積極的인 支援을 모두 얻어야만 全面南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狀況에서는 全面戰을 충동할 뜻이 두 나라에 없는 듯 하므로 全面南侵의 可能性은 많지 않으며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附隨現象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全面南侵을 除外한 對南戰略을 택하게 될 것이다. 中共과 蘇聯

이 支援할 수 있는 戰略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4) 独自の인 軍事戰略을 開發하지만 正規戰에는 蘇聯式의 戰略을 非正規戰에서는 中共式의 戰略을 많이 쫓게 된다.

蘇聯의 武器가 주종을 이루지만 中共의 武器도 供給되고 있다는 點과 韓半島의 特殊性을 考慮할 때는 兩國의 戰略이 混用될 可能性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正規戰에 있어서도 傳統的인 戰爭方式과 게리라戰의 方式이 併用될 可能性이 크다고 하겠다.

B. 軍事能力에 미치는 影響

앞에서 우리는 中·蘇紛爭이 北韓의 軍事路線에 어떤 影響을 미쳐 왔고 또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았거니와 이제 그 軍事能力에 어떤 影響因子로 紛爭이 作用하고 있고 또 할 것인가를 提示하여 보기로 하자.

(1) 現存의 同盟体制은 繼續 維持될 수 밖에 없다.

中共이나 蘇聯의 어느 한쪽이 北韓과의 同盟을 廢棄하게 된다면 北韓은 그 다른 國家에 밀착하기 때문에 이들 兩國은 北韓과의 同盟을 繼續 維持하게 될 것이다.

지금 蘇聯과의 同盟은 71년에 만기를 맞았으나 異議를 제기하지 않아 76년까지 自動延長하게 되어 있다. 中共과의 同盟은 無期限으로 廢棄에 「合意」해야만 廢棄할 수 있는데 北韓의 必要때

문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兩同盟體는 兩大共產國과 美國의 關係 및 새로운 韓半島情勢가 전개되지 않는 한은 廢棄될 수 없을 것이며 그에 따라 北韓에게는 다음과 같이 能力面의 有利함과 政策面의 制약을 받게 될 것이다.

㉓ 蘇聯이나 中共의 支援을 모두 確保하게 되어 能力面에 거대한 잠재적 背景力量을 갖게 된다.

㉔ 政策面에서는 두 개의 條約에 모두 「朝鮮의 平和的 統一」을 規定하고 있어서 全面南侵을 先制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2) 紛爭때문에 中共과 蘇聯의 北韓에 대한 軍事援助가 競爭的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兩國은 外交戰을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兩國은 어느 1國이 平壤에 대해서 絶對的인 多量의 軍事援助를 할 경우 北韓이 그쪽에 密着할 것을 두려워 하여 均衡있게 그리고 競爭的으로 對北軍援을 하게 된다.

65年 코시긴의 平壤訪問을 契機로 맺어진 새로운 軍援協定 및 67年의 協定 등은 紛爭의 틈바귀에서 오히려 北韓이 軍事力增強을 할 수 있었음을 알려주는 實例이다.

이렇게 볼 때 紛爭은 北韓에게 불리하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有利한 要因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第5章 統一 및 韓國行動에 미치는 影響

1. 統一에 미치는 影響

2. 韓國의 對中·蘇行動에 미치는 影響

1. 統一에 미치는 影響

앞에서 보았듯이 中·蘇紛爭은 國際政治와 北韓에 적지않은 影響을 주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影響이 韓半島의 統一問題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國際政治에 投映되어 발생하는 것과 北韓에 投映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나누어 그것을 보도록 한다.

가. 國際政治에 투영되어 오는 影響

(1) 中·蘇紛爭은 美·中和解와 美·蘇의 現狀維持政策을 촉진시켰는바 그에 따라 統一問題는 다음과 같은 影響을 받게 된다.

㉑ 現狀變化를 의미하는 韓半島의 統一은 어렵게 된다.

㉒ 韓半島에서의 全面戰이 일어나지 않게 強大國이 牽制와 抑制作用을 하게 되며 小規模衝突이 全面戰으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美·中의 直接戰이 되지 않는 方向에서 해결될 것이다. (北으로는 元山과 平壤線以南이 될 것임).

㉓ 全面 武力統一이 어려워짐에 따라 北韓은 南韓內에서의 變亂을 통한 段階的 統一方式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2) 분쟁으로 소련과 중공의 어느 쪽도 北韓에 대한 獨점적 影響

力을 가질 수 없게 됨에 따라 「合意」에 의한 統一은 어렵게 되었다. 또 만약 武力에 의한 統一을 하려 할 경우에도 平壤과 元山以北의 收復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統一問題는 南北韓自身의 문제로 굳히는 것이 韓國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게 된다.

(3) 앞의 것과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4대국의 利害와 統一問題가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이들의 利害에서 共通點에 기반을 두는 統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실정으로 보면 現實下에서 가장 利益을 누릴 수 있는 國家는 統一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統一의 實現은 실제로는 가까운 將來에는 어렵게 되었다.

(4) 분쟁은 外交競爭을 불러 일으키는바 北韓은 兩國에 便乘하여 국제적 진출을 크게 함으로서 國際優位下의 統一構想이라는 우리의 기반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國際指向性을 갖는 우리의 統一姿勢는 國內指向性(南北間 解決)과 조화를 이룰 수 밖에 없게 된다.

나. 北韓에 투영되어 오는 影響

(1) 분쟁때문에 中共과 소련은 外交에 있어서나 武器支援에 있어서나 北韓에 대해서 경쟁적인 支援을 하게 됨으로서 優位에서의 統一이라는 우리의 政策은 큰 試練을 받게 된다.

㉔ 國際社會에서의 北韓의 位置改善이 뚜렷해 지고 그에 따라 國際的 優位下에서의 統一構圖는 크게 수정될 수 밖에 없게 된다.

㉕ 北韓을 장악하기 위해서 武器援助가 경쟁적으로 실시됨으로서 우리의 統一政策은 그러한 潛在威脅의 顕在化(戰爭)를 막는 데로 一次的인 方向을 잡아야 할 것이다. 對話의 繼續은 戰爭抑制의 매우 중요한 手段이 될 것이다.

(2) 분쟁이 北韓의 自主路線과 金日成体制의 強化를 촉진함에 따라 統一에 대한 北韓의 姿勢에도 變化가 일어나게 된다.

㉖ 政治, 經濟, 外交, 軍事 등多方面에 걸쳐 北韓의 南北決戰 態勢는 우리보다 확고하게 되어 對外依存性이 높은 리는 統一問題에 대한 政治 및 心理攻勢에서 상당기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對外依存性을 탈피할 準備를 갖추지 않는 한에는 高度의 政治問題인 統一問題에서 劣勢의 입장에 서게 될 염려가 있다.

㉗ 赤化統一의 執念이 강한 金日成의 性格에 영향되어 早期統

一論을 北韓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무리한
統一作業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作業實施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 對話의 役割은 중요하다.

(3) 北韓이 兩大國의 분쟁으로 그들의 統制를 별로 받지않게 되
는 동시에 분쟁에서 결과된 軍援增大가 있게 됨에 따라 暴力統一
戰略을 구상할 수 있는 狀況은 더욱 늘어 나게 되었다.

外
1
J

中・蘇紛爭이 國際政治 또는 北韓에 미치는 影響에서 間接적으로
는 우리에게 대한 有利點과 不利點등이 暗示되었다 . 그러므로 여기
서는 그러한 角度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을 뽑기 보다는 다른
角度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

우리의 共產國에 대한 關係改善 提議가 실현될 수 있는가의
角度이다 . 中共이나 소련이 우리와 적극적인 關係 改善과 接近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問題를 中・蘇紛爭과 관련시켜 검토해 보자
는 것이다 .

이를 보는데 있어서는 關係改善을 可能케 하는 紛爭의 影響變數
와 不可能하게 하는 影響變數를 일단 羅列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韓・蘇 또는 韓・中共關係와 改善되기 힘들게 하는 것으로는 다
음과 같은 것 들을 들 수 있다 .

(1) 兩國中 어느 一國이 韓國과 積極적 關係를 程度以上으로 맺
게 되면 그 나라는 北韓을 다른 나라의 独占的 影響圈속에 넣
어 주는 것이 된다는 점이다 . 그러므로 소련과 中共은 지금까지
뒹아 놓은 北韓에서의 기반을 잃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韓國과의
關係 改善에 주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만약에 兩國中 어느 一國이 北韓을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다른 한 나라는 安全保障上 중대한 虛點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소련이나 中共이 모두 不利益을 감수하면서 國際的 冒險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2) 紛爭의 도가니 속에서 北韓이 어느 一國에 완전히 밀착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北韓이 兩國中 一國에 밀착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國家와의 關係改善이 있음직도 하다. 그러나 紛爭과 관련한 北韓의 外交는 高度의 技術性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兩大國이 모두 密着된 것과 다름없어서 우리의 對共產圈關係改善은 실제로는 큰 效果를 낼 수 없다.

이와같이 紛爭이 中·蘇와 韓國의 關係改善을 막는 구실을 하고 있는 면도 있으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면도 없지 않다.

(1) 中·蘇가 紛爭當事者로 되자 兩國은 모두 韓半島에서의 어떤 중대한 變化가 다른 一國에게 결정적인 利得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現狀維持를 지향하고 있다. 이 現狀維持政策은 우리의 平和, 平和共存(共產國과의 共存 및 改善)原則과 相應된다. 따라서 우리와 이들 兩國은 外交哲學에서 共通點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關係改善이 論理上 가능한 것이다 .

(2) 兩國이 경쟁적으로 아시아에서 中小國의 支持를 얻으려 한다는 점이다 . 소련의 아시아 集團安保도 따지고 보면 中共包圍를 위한 構想일 수 있지만 中共包圍를 하려 할 경우 韓國과 台灣도 考慮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 中共의 경우는 韓國과 關係改善을 할 경우 소련의 東海掌握에 제약을 주고 日本의 韓國進出을 防止할 수도 있는 二重效果가 있다 .

以上에서 中·蘇紛爭이 韓·蘇, 韓·中共關係改善을 중요하게 막는 것과 촉진하는 것을 들어 보았다 . 물론 그것들은 너무도 形式論理的인 것일지 모른다 . 그러나 그러한 論理가 때에 따라서는 現實化될 수도 있는 것이다 .

韓國이 中共이나 소련과 관계를 크게 개선한다는 것은 中·蘇紛爭이라는 각도에서만 생각할 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 그것은 보다 더 明確한 態度表明 (예컨대 우리의 軍事力이 中共이나 소련에 대한 敵對物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戰爭抑制를 위한 北韓과의 均衡을 유지하는 手段이라는 따위) 이나 美國과 北韓, 日本과 北韓과의 關係와도 관련될 때는 더욱 그러하다 .

그러므로 이들 兩國과의 改善은 日·美의 對北改善과 交換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와 兩國과의 問題만은 아니라고 하겠다 .